

봄비가 준 5일의 휴식 KIA에 득될까 득될까



'봄비'가 KIA 타이거즈에 득이 될까? 득이 될까? KIA 타이거즈는 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SSG 랜더스와 시즌 3차전을 치렀다. 양현종과 김광현의 '빅매치'가 펼쳐진 이날 KIA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일찍 그라운드에 모였다.

투수들이 외야에서 캐치볼로 몸을 푸는 동안 야수들은 각자 포지션에서 수비 훈련을 하며 일과를 시작했다.

KIA는 지난 3일 롯데와의 홈경기를 끝으로 그라운드에서 쉬지 못했다. 봄비가 연이어 내리면서 4경기가 연달아 취소됐고, 월요일 휴식일까지 더해 6일 만에 경기에 나서게 됐다.

바쁘게 달려왔던 투수들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 됐지만 야수진은 '감'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타석에서의 승부는 물론 수비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야수진은 이날 공수에서 부지런히 훈련을 소화했다.

KIA는 지난 4월에도 개막 2연전 이후 KT 위즈와의 주중 3연전에서 비를 만나 고전했다. 이어 지난 주말 NC 다나노스와의 원정경기까지 여름철도 아닌 봄에 벌써 두 번째 3연전 취소를 경험했다.

낙담했던 휴식에 대한 반응은 조금씩 달랐다. 이병호 타격 코치는 "타격 페이스가 당시 고점을 찍었다. 사이클로는 내려갈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휴식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홍세완 코치는 "타격 흐름이 좋을 때 비를 만나서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투타자로 활약하고 있는 류지혁에는 휴식이 너무 길었다.

류지혁은 "하루 정도 쉬면 컨디션이 올라오는데 너무 쉬면 감을 잃는다"며 "그래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몸이 안 좋았던 선수에게는 쉬어갈 수 있

투수들에게는 재충전의 시간 야수진은 '감' 걱정할 상황 선발진 로테이션에도 변동

는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어려운 초반을 보내고 있는 '마무리' 정해영에게는 반가운 비가 됐다.

정해영은 "페이스가 흔들렸던만큼 좋은 휴식이 됐다. 좋을 때는 계속하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쉬어가고 싶다"고 웃었다.

이어 "타자들의 감이 올라왔는데 경기 취소는 좋지 않을 것 같다. 대신 투수들이 체력을 비축했으니 투수들이 이번 주에 힘을 내야 한다. 나만 잘하면 된다"고 각오를 다졌다.

예상치 못한 '봄비'에 걸음이 멈췄지만 KIA는 새 출발선에서 시작하겠다는 각오다. 선발진 로테이션 변동 가능성도 있다.

김종국 감독은 "올스타 브레이크를 제외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다. 10일 앤더슨이 선발로 나선다. 다음은 투수 코치와 상의해서 컨디션이 좋은 순서대로 내보낼 생각이다"고 밝혔다.

원래 로테이션으로는 앤더슨에 이어 이의리의 순서. 9일 KIA 불펜에서는 이의리와 윤영철이 피칭을 했다.

비로 인한 휴식기간 메디나도 재조정 시간을 가졌다.

김종국 감독은 메디나에 대해 "분석팀, 배터리 코치와 함께 다음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구종을 조금 다르게 해볼 생각이다. 앞서 투심 위주로 피칭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다른 것도 추가해서 조정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마요르카 이강인



나폴리 김민재

이강인 마요르카·김민재 나폴리 6월 8·10일 한국에서 맞붙는다

서울·고양에서 친선경기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뛰는 나폴리(이탈리아)와 '윈더 보이' 이강인이 속한 마요르카(스페인)가 6월 국내에서 두 차례 친선 경기를 벌인다.

축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7일부터 스포츠 전문 컨소시엄으로부터 나폴리와 마요르카 친선 경기의 국내 개최 신청 서류를 받아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 일자와 장소는 6월 8일 서울월드컵경기장, 6월 10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이다.

2022-2023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무려 33년 만에 우승한 나폴리와 이강인이 이번 시즌 맹활약 중인 마요르카가 국내에서 맞대결할 경우 웬만한 국가대표팀 경기 못지않은 팬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특히 수비수 김민재와 공격수 이강인이 각자 소속팀 유니폼을 입고 벌이게 될 '청과 방패'의 대결은 초여름 축구 팬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경기가 열릴 예정인 서울과 경기도 시설관리공단과 지역 축구협회는 해당 경기 개최에 동의해 승인 절차를 마쳤다.

또 나폴리와 마요르카가 외국에서 친선 경기를 벌일 경우 필요한 유럽축구연맹(UEFA)과 이탈리아, 스페인 축구협회 및 프로연맹 동의서도 모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차전이 열릴 6월 10일은 국내 프로축구 K리그 경기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토트넘(잉글랜드)과 세비야(스페인)의 국내 친선 경기 개최된 7월 16일에도 K리그 경기가 함께 열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정을 정하는 데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해영

PGA AT&T 바이런 넬슨 3년 연속 우승 도전장 KLPGA NH레이디스 챔피언십

이경훈, 한국인 최초 타이틀 방어전

이경훈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동일 대회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이경훈은 1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1·7414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950만 달러)에 출전한다.

이경훈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며 PGA 투어 2승째를 수확했다.

2021년 대회 우승은 투어 80번째 출전 만에 얻은 첫 우승이었다.

한국 선수가 PGA 투어에서 같은 대회를 2년 연속 제패한 것은 이경훈이 유일하다.

최경주가 2005년 10월 크라이슬러 클래식과 2006년 10월 크라이슬러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적 있지만, 두 대회는 서로 다른 대회로 열렸다.

그 이후로 아직 우승이 없는 이경훈은 이번 대회에서 대회 3연패와 투어 3승째를 동시에 낚겠다는 각오다.

대회 3연패는 PGA 투어 역사 전체를 놓고 봐도 찾기 힘들 정



도로 이루기 힘든 기록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오직 9명만이 달성했고, 그중 7명은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을 정도로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었다.

가장 최근 기록은 2009~2011년 존 디어 클래식에서 우승한 스티브 스트리커(미국)가 세웠다.

1944년 창설된 AT & T 바이런 넬슨에서는 1978년부터 1980년까지 3년 연속 우승한 톰 왓슨(미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만큼 달성하기 힘든 위업이지만, 이경훈이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이경훈은 전날 웰스파고 챔피언십을 공동 8위로 마무리하며 시즌 세 번째 톱10을 기록했다.

그는 올 시즌 16개 대회에 출전해 13차례 컷을 통과했고, 톱 25에는 5차례 진입했다. 최고 성적은 지난해 10월 CJ컵 3위다.

PGA 투어도 대회 파워랭킹에서 이경훈을 2위로 매겼다. 선두는 세계 랭킹 2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다.

/연합뉴스

박민지, 역대 4명 만 이룬 대기록

지난 2년 동안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대세'로 군림한 박민지가 지금까지 4명밖에 이루지 못한 단일 대회 3연패에 도전장을 냈다.

박민지는 오는 12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용인시 수원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KLPGA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8억원)에 출전한다.

박민지는 2021년에 이어 작년에도 이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번에 타이틀 방어에 또 성공하면 대회 3연패를 이룬다. KLPGA투어에서 단일 대회 3연패는 고(故) 구옥희, 박세리, 강수연, 그리고 김해림 등 4명만 밟아본 대기록이다.

최근엔 김해림이 2016~2018년 교촌 하니 레이디스 오픈에서 이룬 바 있다.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박민지의 후원사 NH투자증권이 주최한다. 한국 프로 골프에서는 후원사 주최 대회 우승은 선수한테 아주 뜻깊다. 재작년 이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고, 지난해 2연패를 달성했을 때 박민지가 다른 대회 우승 때보 다 눈에 띄게 기뻐했던 이유다.



이번 시즌 들어 4차례 대회에서 2차례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서서히 컨디션 끌어올리는 박민지는 시즌 첫 우승을 뜻깊은 대회 3연패로 장식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박민지는 이 대회에 앞서 코스 세팅이 어렵기로 유명한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 메이저대회 살롱파스컵에 출전해 샷 감각을 조율했다. 박민지의 대회 3연패를 저지할 강력한 경쟁자도 준비하다.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 크리스토프앤씨 K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화려하게 부활한 이다연은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이다연은 지난 7일 끝난 교촌 하니 레이디스 오픈을 건너고 체력을 보충하며 이 대회를 준비했다.

상금랭킹 1위 박지영과 국내 개막전 이예원, 그리고 우승 없이 대상 포인트 1위에 오른 이소영과 상금 3위 박현경도 빼놓을 수 없는 우승 후보들이다. 약천후 때문에 36홀로 치러진 교촌 하니 레이디스 오픈에서 최중일 출신원을 앞세워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린 박보검은 깜짝 우승이 행운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 출사표를 냈다.

/연합뉴스